

광주 광산을 보궐 '6파전'... 치열한 다자구도 형성

민주, 임문영 전략공천...국힘 안태욱·혁신 배수진 참전 진보 전주연·기본소득 신지혜·무소속 구분기 표심 경쟁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인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갖추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천명' 임문영 대령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내세운 가운데 범야권 모두 참전의 뜻을 밝히면서 치열한 다자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출신 임문영 부위원장을 영입 인재로 발탁,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임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 참모로 활동해온 천명령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경기도와 대통령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에서 디지털·AI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민주당이 광산에 정치인보다 정책형

인사를 전면 배치한 것은 AI 산업과 미래 산업 중심 도시를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광주가 국가 AI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을 앞세워 'AI 대표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임 부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윤곽을 갖게 됐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출마 재비를 마쳤다. 안 전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도전했으나 방향을 틀어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광주 출신 배수진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했다. 입법과 행정, 실



임문영



안태욱



배수진



전주연



신지혜



구분기

무를 두루 거친 인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가진 뒤 광주행 열차에 몸을 싣고 본격적인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다.

배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호남 정치에도 앞장설 사람, 호루라기를 불 사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눈치 보느라 못하라는 말, 자리 뺏길까 봐 머뭇거리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노동 전문인 전주연 전 광주시의원을, 기본소득당은 사회활동가 출신

으로 창당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신지혜 최고위원을 본선 후보로 내세웠다. 촛불행동을 이끌어온 시민운동가 구분기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처럼 광산을 보궐선거가 6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젊은 유권자 층을 번수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기반이 탄탄한 광산이지만 10명 중 7명이 40대 이하라는 점에서 20~40대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에서 여성 후보를 전진 배치한 점도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천명령 핵심이자 AI 정책 상징성이 강한 인물을 전략 배치하면서 정권 초기 국정동력 확보와 광주 AI 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야권은 민주당 독점 견제와 개혁 경쟁 구도도 차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과 젊은 층의 표심, 지역에서 민주당의 대안 정당이라 의치고 있는 야당이 얼마만큼 결집할 지가 보궐선거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을 선거구역은 비야동, 첨단 1·2동, 신가동, 신창동, 수안동, 하남동, 임곡동 등 총 8개 동으로 구성됐다. 인구수는 23만명 안팎에 이르며, 이 중 40대 이하 젊은층 인구가 65~70%에 달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지방선거-재보선 선전 다짐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책대 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민

이정선, 교육공무직 임금 '호봉제' 추진 공무직단체 정책 협약... "전국 최고 임금 보장"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예비후보(사진)가 교육공무직단체와 정책협약을 맺고,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호봉제로 전환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광주한마음교육포럼은 6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탈피하고 직무 가치에 걸맞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정선 후보와 호봉제 전환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필수 구성원인 교육공무직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광주한마음교육포럼은 이정선 예비후보와 이날 오후 '교육공무직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식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호봉제 전환뿐 아니라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육공무직센터' 운영 방안도 담겼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표준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직원이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임금 체계'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직종에서 발생하는 방



이정선

학중 무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의 365일 고용 실현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시·도 간 임금 형평성 유지와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도 명시됐다.

타 시·도 교육청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처우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금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존 권리와 처우가 후퇴하지 않도록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도입했다.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정선 예비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연임 광주한마음교육포럼 대표는 "이번 정책협약은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현될 경우 통합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노관규 순천시장 무소속 출마... "변화 완성할 터"

그린바이오·우주항공 등 순천미래 전략 5대 경제축 제시

노관규 순천시장 재선 도전에 나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6일 오전 오전 그린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지난 4년간 순천의 변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을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겠다"며 민선 9기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노 시장은 "정당이나 정치권에 얽매이지 않고 순천의 미래만을 위해 일하라는 시민의 선택에 따라 지난 임기를 달려왔다"며 "그 책임을 결과로 증명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성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비롯해 남문터광장, 오천그린광장, 신대천 등 도시 공간

재편 사업을 제시했다. 또 한화에어로스에이스, 포스코리튬솔루션, 코스트코 등 기업 유치로 통해 산업 기반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정원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경제 구조 역시 변화의 기반을 갖겠다"며 "순천이 축적해온 성과를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견제 메시지도 내놨다. 노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를 부정하고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국 지역 발전을 늦출 수밖에 없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향후 시장 방향으로는 5대 경제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그린바이오, 문화콘텐츠, 우주항공·방산, 치유 산업, 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시장은 "앞으로의 4년은 순천이 전남 동부권 중심 도시로 자리 잡는 결정적 시기"라며 "성과로 증명할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의 완성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순천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인 곳이다.

노 후보는 민선 3~4기, 8기에 이어 4선이자 연임 행보에 나선다. 3번 중 2번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에서는 손훈호 후보가 경선을 거



노관규

쳐 선출됐지만, 캠프 관계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져 중앙당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후보가 출마해 격전을 예고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전남광주 진보 3당, '신호등 연대' 구축 "일당 독점 깨고 진짜 진보정치 실현할 것"

전남광주지역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연대를 구축하며 6·3 지방선거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신호등 연대'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깨고 진짜 진보정치를 실현하

겠다"고 밝혔다.

신호등 연대 공동선대위는 "인구 소멸과 경제적 격차 등 불평등 위기는 양당제와 독점 정치의 결과"라고 지적한 뒤 "시민들의 보편적 삶의 질 보장과 상생을 위해 신호등 연대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불평등 해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일자리 보장, 적정 임금, 안전한 일터 실현,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 모든 시민을 위한 햇빛·바람연결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위기, 기후위기, 지역소멸 위기의 파고를 넘는 유일한 진보정치로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진보 3당의 약속을 통합특별시장선거에 나선 강은미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담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러 "일당독점을 깨뜨리고 상생의 공동체를 일구는 진짜 진보야당 후보 강은미를 지지하고 응원해달라"며 "모든 시민이 특별해지는 '삶이 빛나는 노동특별시'를 향해 굳건한 신호등 연대로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 위원장, 녹색당 손어진 부대표(광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비롯하여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장 위원장,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무소속 노남수, 광주 북구청장 출마 선언 AI 혁신기업 거점·최첨단 의료중심 도약 공약

노남수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6일 북구청사 앞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북구를 대한민국 AI 혁신기업의 거점과 최첨단 의료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4천 5기의 정신으로, 이제 광주 북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출시표를 던졌다.

그는 북구에서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노 후보는 AI 혁신 행정과 빅5병원 유치, KTX 광주역 지하화 연결 등을 공약



노남수

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북구의 산단 자원을 활용한 AI 혁신기업 거점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노남수 후보는 "민주당 공천은 당신이 라는 일당독점 구조의 정치가 아닌 능력이 앞서서 인물을 선택해주길 부탁드립니다"며 "오직 57년간 살아온 고향 북구만을 위해 청년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